



노동부  
Ministry of Labor

## 보 도 자 료

- ▶ 사회적기업과장            마성균
- ▶ 사회적기업과 서기관   이민재

- ▶ 2010. 6. 11. 배포
- ▶ 총 26쪽

T E L : 2110-7159  
E-MAIL : nice781@molab.go.kr  
F A X : 503-6267

### **“지역형 사회적기업” 전국적으로 도입 -대통령 주재,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회의 개최-**

□ 정부는 '10년 6.11(목) 오전 관계부처장관,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「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\* 참석대상(총25명) : 기재부·행안부·노동부장관, 환경부 등 부처장관, 한나라당 정책위의장, 대구시·전주시, 교수 등 외부전문가, 사회적기업대표 등

\* 장소 : 영등포구 소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(하자센터), 사회적기업인 오가니제이션 요리·노리단 등 활동 중

□ 이번회의는 “사회적기업”이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,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□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.

## 현행 노동부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

- 다음달부터 모든 지자체가 「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」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\* 예비사회적기업 : 정식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,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과 기업의 도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단체 등

-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.

-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“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”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.(예산 규모는 금년의 경우 1,075억원)

- 지역 고용전문가·노사단체·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,

-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“지식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”(일명 프로보노)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.

##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주체는 연계기업 외 법인·개인으로 확대

- 개인·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,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이후 기술지원·전문성 기부를 유도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 촉진,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.

-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도 조성된다. 현재는 연계기업\*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% 한도로 손금산입을 하였으나, 연계기업 외 법인·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.

\*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·경영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기업

### 관계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 5대 전략분야 육성,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·구매 등 정책혜택 부여

- 중앙부처간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.
  - ①문화, ②녹색에너지, ③지역, ④교육, ⑤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.
  -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, 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, 돌봄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.
  - **사회적기업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** 사회적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소득 증대 등의 사회목적 실현이 포함되도록 사회적기업 개념을 확대한다.
  -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·구매, 세제혜택 등 정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.

비상경제대책회의 결  
국가고용전략회의

---

#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

---

2010. 6. 11



**노동부**  
Ministry of Labor

◇ “일자리만들기가 최고의 국정과제이며, 「사회적기업」은  
일자리 창출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.”

이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,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 
방식이 중요함”

\* 제3차 고용전략회의(3.4) 및 사회적기업 「동천」 방문(2.19)시  
대통령님 말씀

◇ 이에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 
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릴

# 목 차

I. 「사회적기업」의 정책적 함의 .....	1
II. 그간의 성과 평가 .....	2
III. 추진방향 .....	4
1.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·육성하겠습니다 .....	5
2. 국민과 함께, 따뜻한 사회적기업 분위기를 형성하겠습니다..	9
3. 중앙부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.....	11
IV. 추진일정 .....	15

【참고1】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평가

【참고2】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현황

【참고3】 관계부처 사회적기업 육성현황

## I. 「사회적기업」의 정책적 함의

- 우리정부는 **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,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은 지원해주는 열린 사회를 지향**
  -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한계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을 모색
- 이와 함께 **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,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급증**

“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어...”

“일자리 창출 대안인 사회적기업, 내 직장 자부심 뚝뚝, 블루오션 개척·지역 혜택 일석 삼조...”(10.5.13자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보도)

- **사회적기업(Social Enterprise)**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**일자리**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**서비스**를 생산
  - 재화·서비스 생산 등 **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재투자하는 따뜻한 희망나눔 기업**

“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세계 경제 희망”(옥스포드 스쿨포럼)

“사회적기업은 어려운 이웃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에 기여함으로써,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성과”(빌게이츠)

- 기업과 국민은 각자가 가진 **전문성·재원·기술지원 등을 기여**

➡ 「사회적기업」은 **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형을 접목**

➡ 「일을 통한 복지」를 통해 “서민을 따뜻하게, 중산층을 두텁게” 함으로써 **국민통합·사회통합에 기여**

## II. 그간의 성과 평가

### 1. 성과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시행('07.7~)으로 법적·제도적 토대 마련
  - 돌봄·환경·문화 분야 등에서 319개의 「사회적기업」이 활동 중
    - \* 장애인·고령자 등 취약계층 6천명을 포함하여 11,177명을 고용, 2만여명의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
  - 지방자치단체·기업 협력 등으로 다양한 예비 사회적기업 활동 중(860여개, 16,719여명 종사)

“우리나라는 법제정이후 아직 시작단계지만 초기 성과가 좋아 일단 첫 단추 꿰기엔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지속 성장이 기대.” - LG경제연구소 「LG Business Insight 2009.5.6」

- 일반기업 못지않은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, 산업 구조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
  - 사회적기업 서비스 구매 등 ‘착한 소비’라는 문화적 흐름 조성



근로자 63명 중 정신지체 장애인 40여명을 고용, 모자·차수품 생산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,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‘동천’('07~)  
\*매출액 '08년 19억 → '09년 22억



재활용자전거 제작·판매 및 예술자전거 퍼레이드, Tour Bike 운행 등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는 ‘대구YMCA 희망자전거제작소’('08~)  
\*총 근로자 48명 중 취약계층 29명 고용


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‘날개베이커리’를 운영하고, ‘상생네트워크’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보조하는 ‘대안일터 큰날개’('08~)  
\*총 근로자 124명 중 취약계층 106명 고용

- 16개 시도 광역지자체의 조례제정 완료('07.7월 0개→'10.1월 16개) 및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마련 등 지역 관심 제고

## 2. 문제점

- (지자체)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, 지자체의 의지 및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 발생

<2010. 6월 현재>

총계	서울	인천	경기	강원	부산	울산	경남	대구	경북	광주	전남	전북	대전	충남	충북	제주
319 (100%)	73 (22.9%)	18 (5.6%)	56 (17.6%)	21 (6.6%)	17 (5.3%)	8 (2.5%)	12 (3.8%)	15 (4.7%)	12 (3.8%)	12 (3.8%)	17 (5.3%)	17 (5.3%)	10 (3.1%)	6 (1.9%)	16 (5.0%)	9 (2.8%)

- (기업) 사회공헌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, 대부분 일회성 기부에 머물러 민간·제3섹터의 투자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실정

\* '04년(1조2천억) → '06년(1조8천억) → '08년(2조2천억)

- 경영지원·전문성 기부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회공헌 연계도 미흡

- (지원방식) 인건비 지원에 편중되어 사회적기업의 즉시 고용확대에는 유리하나, 자립이 어렵다는 지적

\* 전문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컨설팅, 판로개척, 지역·기업 네트워크 구축 미흡

- (범위)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협소하게 운영되어 민간의 창의적인 모델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대두

- 저출산·고령화, 다문화 가정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

\*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영국(5만5천개, 인구 1,100명 당 1개)에 비해 한국의 사회적기업 수(인구 173천명 당 1개)는 매우 낮은 수준

➡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토대 마련이라는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인 도약과 양적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

### Ⅲ. 추진 방향

#### 목 표

- ◆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, 5만개 일자리 창출

#### 추진 전략

- ◆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역·시장 친화적 체제로 전환
- ◆ 지자체가 앞장서고,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개선



# 1.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·육성하겠습니다

## 1-1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

### 최근 언론 동향

“지자체들이 취약계층에 사회적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.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” <10.5.10, 서울신문외 다수>



<대구시>



<광주시>



<강원도>

### □ 「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」 지정제 도입

- (현행)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단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
  - \* 서울시 195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('10.5월), 예산 지원(384억 편성)
- (개선) 모든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단체를 「지역 예비사회적기업」으로 지정·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

####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(안)

- 의의 : 사회적기업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충족시,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- 요건 : ①조직형태, ②사회목적실현, ③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  - \* 사회적기업 요건 : 조직형태, 사회적목적 실현, 유급근로자 고용, 영업활동 수행,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, 정관 또는 규약, 배분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(상법상회사)
- 지원 : 경영지원, 우선구매, 예산지원(사업개발비, 일자리창출사업) 등

-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지역특성·발굴사례 등을 평가·탄력적으로 배정, **지역별 특성화된 브랜드로 육성**

지자체		지역특성	사회적기업 발굴 사례
광역	강원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농림어업 경제활동 비중이 15.9%로 높은 편</li> <li>▪ 농어촌 고령화 심화 예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농산어촌 <b>활력화 사업</b> 대상마을 사회적기업 발굴</li> <li>*도내 52개 <b>정보화마을</b> 대상 「직거래장터」 사업발굴 등</li> </ul>
	광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광주지역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지원과 관리체계 전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및 통합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</li> <li>* 칠석동 당산제, 천연염색, 전래놀이 등</li> </ul>
기초	경기도 안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안산 거주 외국인은 안산시 인구의 4.5%(33천명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대상, <b>다문화 체험 사업 확대</b></li> </ul>
	대구시 남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이천동 복개도로 일대(일명 햇빛촌)는 <b>고미술 상가 밀집</b></li> <li>* 재개발사업이 장기화되면서 <b>지역전반이 침체된 분위기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“<b>햇빛촌 희망만들기</b>”</li> <li>- 고령자 중심으로 친환경생산품, 고미술 상품 장터 개설</li> <li>- 지역주민이 즐겨찾는 <b>문화지역으로 재탄생</b></li> </ul>

## □ 지자체의 “일자리창출 사업” 확대

- (현행)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**일자리 창출사업**은 노동부와 자체 예산이 있는 **일부 자치단체**에서 수행 중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b>노동부</b> : 지자체·고용지원센터·전문가 등 합동으로 “사회적기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” 지원기관을 선정(10년 1,075억)</li> <li>▪ <b>지자체</b> : 서울시(384억), 전북(32억), 경기도(5억) 등 일부에서 시행</li> </ul>
--

- (개선) 노동부에서 수행중인 “**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**”을 **지자체**로 위탁
  - 금년도 신규사업은 **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위탁 추진**, 신규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전면위탁 방안 추진(단계적 시행)
  - \* 전략분야(부처간 MOU체결·지자체 지원방안 마련)를 중심으로 수요조사·신규사업 규모 도출

☞ 지자체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**일자리창출 사업** 단체를 선정, 사회적기업으로 적극 육성

## □ 지자체를 통해 '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' 지원을 강화

- 금년부터 지자체에 **사업개발비**(국비80%·지방비20%, 총 231억)를 배정, 사회적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
  - 사회적기업 육성인지·재정자립도, 우선구매 등을 감안하여 배정
  - \* 1차로 134억(국비 107억, 지방비 27억) 지원(4월)
  - \* 지원범위 : 브랜드, 기술개발 등 R&D 비용,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·마케팅,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
- 향후 지역단위 공동체, 비영리단체, 지역 기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

### 1-2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추진

- 지역 고용전문가·노사단체·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용 민·관 참여 협의체를 통해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
  - 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, 노사민정협의체 등 적극 활용
    - \* 예) 대구지역 민관협의체 : 대구형 1사1사회적기업 창업지원방안 마련 등
  -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화사업(농촌체험 네트워크, 생태마을 등)·기업연계 모델 등을 발굴
- 지역별·특성별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을 통해 지역 자원 연계, 회계·노무·마케팅 자문 등 **프로보노\*** 연계
  - \* 프로보노 : 라틴어 'Pro bono Publico(for the public good)'의 약어, 공익을 위한 전문적 지식·기술·경험을 기부하는 활동

▪ (부산·울산·경남지역 프로보노 운영 예) 「부·울·경 프로보노」 : 지방 변호사회, 대학, 법무법인,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, 회계법인, 경제연구소, 벤처인협회, 지역신문 등 참여 ⇒ 사회적기업에 대한 회계·사업경영 컨설팅 등

### 1-3 “재정지원사업”을 “지속가능한 일자리”로 전환

-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사업(복지제도) 지원방식을 親 일자리 방식으로 전환 노력
- 재정지원 일자리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유도

☞ 정부지원(공공시설 무상임대) 및 민간기부와 연계된 사회적기업 설립, 향후 자립시 예산연도와 관계없이 지속 수행 가능

#### 【부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협약 체결 내용(4.13)】

- (의의) 출산가정 육아·산모도우미 사업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
- (조직) 부산시, 부산은행 공동 참여 ⇒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업수행단 선정, '10.6월 설립 추진
- (운영) 부산시, 부산은행, 부산노인회·노인복지관협의회·민간전문가 등 지원

-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전환 성과를 토대로 예산 지원 확대
- (지자체) 지역의 민관협의체를 통해 재정지원사업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·공시
  - \* 「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공시제(금년 도입)」에 포함 추진
- (중앙정부)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재정적·행정적 인센티브 부여

☞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되도록, 지역별로 탄력적 예산 배정

---

## 2. 국민과 함께, 따뜻한 사회적기업 분위기를 형성하겠습니다

---

### 2-1 기부문화 조성

#### □ 개인·단체 등 민간자원의 연계활동 강화

- 전문직종사자, 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분야별 인력풀 구성, 사회적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 지원
  - \* 경영컨설팅, 프로보노 지원, 상품우선구매 등 판로지원, 시설비 투자, 운영비 지원 등
-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후 기술지원·전문성 기부를 적극 유도,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 지원
  - \* 자원봉사와 유급근로 결합모델 발굴, 여성 유희인력·고령자의 근로활동 촉진(연구용역 병행)

#### □ 기업의 투자 및 경영지원 우수 모델 전파

- 대기업 참여를 위한 사용자단체 등과 민간협의체 구성·운영

- 포스코·현대차·삼성·SK 등 30대 대기업 중심, 전경련·대한상의·경총 등 참여
- 범정부적 캠페인 전개(「1사1사회적기업」 후원 결연 등)

- 기업의 일회 기부성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지원과 연계

- (현행) 연계기업\*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% 한도로 손금산입 허용

\* 연계기업 :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·경영 등 각종지원을 하는 기업

- (개선)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주체를 연계기업 외에 법인·개인으로 확대

## 2-2 국민적 공감대 확산

### □ 미래세대의 사회적기업가 양성 기반 마련

- 지역공동체와 공익도 중시하는 기업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교육
  - \* 사회적기업의 내용과 가치를 초·중등 사회경제 교과서에 반영, 학교 순회형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강화
-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**사회적기업 CEO** 육성

▪ 대학(원)내 학위·전공과정의 교과과정 개설('11년 10개 과정 개설 목표)하는 대학(원)에 대한 지원 확대  
▪ '09년 KAIST 등 4개 과정→'10년 고려대 등 6개 과정→'11년 10개 과정 목표

-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대학 산학협력단·창업센터와 연계, **청년층의** 참여 확대('09년 14개팀 입상 → '10년 20개팀 이상으로 규모 확대)

### □ 언론, 학계, 전문가, 지자체, 정부 등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**국민적 공감대 확산**

- 「2010년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만들기」 사업 추진, 지역의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등 확산
  - \* 지자체-기업-주민·학생 참여, 분기별 성공사례 발표·확산
  - \* 「우리동네 사회적기업 이야기」 수기공모전 등

- 다양한 부문에서 일반국민이 참여, 사회적기업 지원 실천 활동 전개
  - \* 민간협의체인 「**사회적기업활성화포럼**」 발족('10.4.13), 학계·정계·노사·종교계 등 12개 부문 52개 단체 등 참여

☞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('07.7) 3주년 기념식을 통해 「제2의 도약」을 다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

- \* 일반국민·기업·지방자치단체·각부처 참여, 사회적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전 공유

### 3. 중앙부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

#### 3-1 전략분야 육성전략 마련

-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, 5대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
  - 관계부처간 MOU 체결 및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방안 마련

전략분야	부처	사회적기업 발굴 유형 예
문화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09.6월 노동부-문광부 MOU 체결</li> <li>· * 40개(449명 일자리)의 예비사회적기업 창출 중</li> <li>· 문화재관리·활용분야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</li> </ul>
녹색에너지	환경부 산림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2년까지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300개 육성</li> <li>· * '10.5.10 노동부-환경부 MOU 체결</li> <li>·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중 수익가능 모델 발굴</li> </ul>
지역	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5년까지 「농어촌 공동체회사」 사업 3천개소 육성 → 사회적기업으로 유도</li> <li>· 「Post-희망근로사업」(희망의 집수리사업 등)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의 사회적기업 발전 유도</li> </ul>
교육	교육과학기술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공성이 담보된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 → 공교육의 보완 기능 수행(추진 협의체 가동, 3월~)</li> </ul>
돌봄	보건복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집수리·간병·청소·자원재활용·음식물 재활용 등 자활공동체 사업 대상 사회적기업화 지원 등</li> </ul>

- 공공부문의 전문성·기술성 지원 등을 토대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
  - 각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이 부문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

#### <노동부 산하기관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계획(4월~)>

- 근로자재활지원(근로복지공단) : '재활공학서비스' 전문 사회적기업 육성
- 직업훈련(산업인력공단) : 은퇴 베이비붐 세대를 활용한 HRD전문 사회적기업의 설립 지원
- 산업안전(산업안전보건공단) : 근로자 기초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공모·선정하여 사업 위탁을 통한 육성
- 장애인고용(장애인고용공단) : 자회사형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원을 통한 육성

### 3-2 사회적기업 범위는 확대, 사후관리는 강화

#### □ 사회적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사회 수요 변화에 대응

○ (현행)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유형으로 운용

\*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<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>

○ (개선)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, 잠재적 대상기관의 진입을 유도

-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낙후 지역의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사회적목적 실현을 포함

▪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영업활동 수행, 이윤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경우 「지역사회공헌」 사회적기업으로 육성(관련 법적근거 마련 5.19 국회통과)

\* (예시) 지역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생태마을 조성·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(주)이장>

- 하위법령 후속 추진시, 요건 등을 구체화(~11월)

○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네트워크 가동(6월~), 지자체에서 환경·녹색에너지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

\* 해당부처는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을 통해 심사절차에 참여

#### □ 사회적기업 역량제고 및 브랜드 가치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

○ 회계감사·상시 모니터링 체제 가동, 인증 취소요건 강화

○ 전문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 품질 및 성과를 평가하여 공시

\*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수익률 분석 등 관련 연구 용역(5월~)

○ 사회적기업 참여자 네트워크를 통한 자율관리도 독려

### 3-3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

□ (현행) 설립·경영지원 등은 있으나 제품판매, 금융·세제지원 등 자립·수익창출을 위한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

\* 중소기업지원법상 중소기업을 상법상의 회사로 한정해석(중기청) → “상법상 회사가 아닌 사회적기업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각종 금융·구매(판로)·세제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

<사회적기업 유형>

비 영 리(182개 57.1%)					영 리(137개, 42.9%)
민법상법인	비영리민간단체	사회복지법인	생활협동조합	영농조합법인	상법상회사
76	54	40	10	2	137

□ (개선)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

○ **경영 컨설팅·기술개발·영업판로 개척** 등 경쟁력 지원 강화

\* 다만, 초기단계는 상품구매·인건비 등 직접지원방식 병행

○ **사회적기업 유형을 고려하여 지원방식을 차별화**

\*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(일자리제공)의 경우는 초기 인건비 비중을 높게 책정, 친환경 상품 등 지역특화사업(지역사회공헌)의 경우는 사업개발지원 등 강화

○ **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·구매 등 정책 혜택 부여**

\*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하여 정책자금(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), 공공기관 우선구매·세제 혜택 등

○ **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제도 마련 및 세제지원제도 합리화**

\* 법인세 감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 감면기간 동안 “최저한세” 중소기업수준 세율 적용

\* ‘10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 감면(50%)혜택을 ‘13년까지 연장 필요

\* 사회적기업이 창업하는 경우 **창업 중소기업 수준**(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, 재산세의 50% 감면)의 한시적 감면 혜택 필요

○ 사회적기업 특성을 반영한 소셜 펀드 조성 등 자본조달모델 개발 등

▶ **지자체 중심으로 민관 협업체제를 가동,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적기업을 발굴·육성하겠습니다.**

○ **정부 정책은 직접지원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**

○ **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, 전국적으로 확산**

○ **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청년, 경험있는 은퇴자, 경력단절여성, 장기 미취업자 등에 보람있는 일자리를 제공함과 더불어**

- **지역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서비스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비**

▶ **지자체·기업·학교 등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생겨나고,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.**

#### IV. 추진일정

구 분	주요 추진내용	6월	7월	8월
□ 지방자치 단체 역할 강화	○ 「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」 지정제 도입			→
	○ 민·관 참여 협의체 활용한 지역 고용대책 수립,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			→
□ 국민적 공감대 확산	○ 사용자단체 등과 민간협의체 구성운영			→
	○ 사회적기업가 양성 기반 마련 * 사회적기업 전공과정 개설, 소셜벤처경연대회 개최 등			→
	○ 「2010년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만들기」 사업 추진 -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발표·공유			→
	○ 사회적기업 3주년 기념 행사 * 지자체, 노사, 국민 등 각계참여		→ (7.7)	
□ 중앙부처의 정책적 지원 강화	○ 전략분야 육성 위한 MOU 체결, 후속조치 등 * 전략분야 : 문화, 녹색에너지, 지역, 교육, 돌봄 등	(노동부) (각부처)		→
	○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개정 - 시·도별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	국회 통과 (5.19)		→
	○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	공포 (6.8)		→

## □ 연구기관 · 학계

- “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, 제도적 지원과 민간 기업과의 사업연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.” - LG경제연구소 「LG Business Insight 2009.5.6」
- “사회적기업의 총자산은 '08년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92.9% 증가, 자본증가율(112.5%)이 부채증가율(75.1%)보다 더 높게 나타나 비교적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영세성을 볼 때 부채의 규모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.” - 부산대 경영학부 「200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」

## □ 최근 언론보도

- “착한기업은 글로벌 이슈다. IT혁명의 진원지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, 복지 제도의 고향인 영국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.” - 10.5.13, 조선일보
- “전남도의 경우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해 일자리 2500개를 만든다는 구상...울산시는 최근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...경기 남양주시는 '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'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동참...” - 10.5.10, 서울신문



&lt;전남도&gt;



&lt;울산시&gt;



&lt;경기 남양주시&gt;

- “노동부와 환경부는 녹색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 2012년까지 환경분야의 사회적기업 300개를 설립하고 이들이 1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.” - 10.5.10, 매일경제
- “농림수산식품부가 사회적기업의 농어촌형 모델인 '농어촌 공동체회사'를 육성한다...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확보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 - 10.5.4, 한겨레
- “일부 부도덕한 사업자가 정부의 혜택을 노리고 사회적기업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다.” - 10.3.12, 동아일보
- “농어촌 사회적기업으로 살린다”(경향신문, 10.3.9), “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일자리 창출기여”(한국경제, 10.3.29) 등 다수

참고2

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현황

시도명	사업명	추진성과	추진계획																				
서울시	서울형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	· 총 2차에 걸쳐 서울형 사회적기업 195개(65백여명) 지정	· 연도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마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'10년</th> <th>'11년</th> <th>'12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1,000</td> <td>250</td> <td>350</td> <td>400</td> </tr> <tr> <td>SE</td> <td>330</td> <td>60</td> <td>120</td> <td>150</td> </tr> <tr> <td>예비SE</td> <td>670</td> <td>190</td> <td>230</td> <td>25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· 인건비 지원 : 일반직원 월90만원/인(50명까지), 전문직원 월150만원/인(1명까지) ·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기업설립·경영컨설팅 지원(전문가 Pool 116명)	구분	계	'10년	'11년	'12년	계	1,000	250	350	400	SE	330	60	120	150	예비SE	670	190	230	250
구분	계	'10년	'11년	'12년																			
계	1,000	250	350	400																			
SE	330	60	120	150																			
예비SE	670	190	230	250																			
부산시	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방안	· 사회적기업 대상사업 분석 벤치마킹(2~5월) · 부서별 사회적기업 발굴보고회('10.2.11, 4.14) ·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(3~4월)	·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(30개 기업, 1,920백만원 예산 편성) · 부서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추진(6건 사업아이템에 97백만원 지원) · 시·부산은행 공동출연 사회적기업 설립추진(소요예산 : 700백만원) · 사회적기업 「부산 방과후학교」 설립계획 마련(소요예산 : 2,000백만원) 등																				
대구시	지속가능한 대구형 사회적기업 육성	·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단 발족('10.3.2~) · 사회적기업 창업 설명회 개최(2회, 47개 기업)	· '12년까지 180개 (예비)사회적기업 육성, 6천명 일자리 창출 · 사회적기업 창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대구형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(20개) → 컨설팅 실시 · 대구시 실·과장을 사회적기업 PM요원 지정 → 애로사항 해결 · 구·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조속 제정('10.9월 중)																				
인천시	사회적기업 육성계획	·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('10.4.9)	· 인천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(소요예산 : 150백만원) ·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장기 발전 육성지원 방안 연구용역(소요예산 : 35백만원)																				
광주시	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	· 사업계획 수립 · 관련 사업비(800백만원) 확보	· 관내 비영리법인·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50개의 일자리(단체당 10명 이내) 창출(6개월간 지원)																				
대전시	대전형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	· 기본계획 수립('10.1)	· 3년간 48개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'10년</th> <th>'11년</th> <th>'12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예산(백만원)</td> <td>10,566</td> <td>1,188</td> <td>4,626</td> <td>4,752</td> </tr> <tr> <td>인원(명)</td> <td>1,180</td> <td>220</td> <td>520</td> <td>44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'10년	'11년	'12년	예산(백만원)	10,566	1,188	4,626	4,752	인원(명)	1,180	220	520	440					
구분	계	'10년	'11년	'12년																			
예산(백만원)	10,566	1,188	4,626	4,752																			
인원(명)	1,180	220	520	440																			
울산시	사회적기업 육성계획	· 육성계획 및 조례제정 · 울산시 (예비)사회적기업협의회 출범('10.3.10) · 제1기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개최('10.5.6)	·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25개 육성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'09년</th> <th>'10년</th> <th>'11년</th> <th>'12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업 수</td> <td>7</td> <td>4</td> <td>6</td> <td>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· 1사1사회적기업 사회공헌 결연 사업 · 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('10.9월, 22백만원) · (예비)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(8백만원)	구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기업 수	7	4	6	8										
구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																		
기업 수	7	4	6	8																			

시도명	사업명	추진성과	추진계획																				
경기도	경기도 (예비)사회적기업 육성 계획	· 전문인력 44개 기관, 45명 지원(347백만원)	·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·육성 ·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 지원(1인당 70만원, 11개월 간) ·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로 기업당 1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(12개 기업)																				
강원도	사회적기업 육성방안	· 종합계획수립, 조례 제정 등 지원기반 구축	·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(지원금액 150백만원) · 사회적기업 도협의회와 네트워크 운영(소요예산 : 10백만원) 등																				
충북도	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	· 조례제정 등 지원기반 구축	· 충북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·운영(13명) ·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('10.5~9월, 40백만원) ·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('10.5~7월)																				
충남도	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	· 육성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	·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육성 · 사회적기업 경영활동 지원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'09년</th> <th>'10년</th> <th>'11년</th> <th>'12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업수</td> <td>5</td> <td>25</td> <td>35</td> <td>35</td> </tr> <tr> <td>일자리</td> <td>83</td> <td>250</td> <td>375</td> <td>375</td> </tr> <tr> <td>예산(백만원)</td> <td>-</td> <td>3,470</td> <td>4,800</td> <td>4,8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기업수	5	25	35	35	일자리	83	250	375	375	예산(백만원)	-	3,470	4,800	4,800
구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																		
기업수	5	25	35	35																			
일자리	83	250	375	375																			
예산(백만원)	-	3,470	4,800	4,800																			
전북도	사회적기업 육성	·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배치('09.4) · 42개 (예비)사회적기업에 시설·장비 지원(300백만원)	· 도 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(350여명, 1~2년, 소요예산 : 4,414백만원) · 문화예술·농어촌 분야 1시군 1사회적기업 집중 육성																				
전남도	전남을 사회적기업 요람으로	· 사회적기업 유치 T/F 개최(2회) · 사회적기업 협의회 개최(2회) · 공동판매장 개설(1개소)	· 대기업 연계 사회적기업 유치, 1시군 1사회적기업운동 전개 · 사회적기업 유치 T/F팀 구성·운영(정무부 지사가 단장, 월1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) · 사회적기업 창업 기반조성 및 자립기반 강화																				
경북도	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	· 육성계획 및 육성위원회 구성 등	·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130개를 발굴·육성하여 사회적기업 100개 인증, 2천개 일자리 창출('14년까지 142억원 예산 투입)																				
경남도	사회적기업 시설·장비 구입 지원	· 조례제정 등 지원체계 구축	· 도내 인증 사회적기업(12개소)을 대상으로 1기업당 15백만원 내외 지원(총사업비 162백만원)																				
제주도	사회적기업 육성·지원	· 연중 기본계획 수립 등	· 제주의 전통과 지형·풍습·경제에 걸맞는 사회적기업 육성(제주말과 오가피를 주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영농조합법인 「산새미」 인증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'10년</th> <th>'11년</th> <th>'12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업 수</td> <td>15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· 사회적기업 CI 및 BI 제작지원(소요예산 : 120백만원)	구분	계	'10년	'11년	'12년	기업 수	15	5	5	5										
구분	계	'10년	'11년	'12년																			
기업 수	15	5	5	5																			

참고3

관계부처 사회적기업 육성현황

구 분	사업명	사업내용 및 추진계획
교육과학기술부	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	· 공공성이 담보된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발굴·육성 → 공교육의 보완 기능 수행 · 정책연구 추진('10.5~8월, 노동연구원), 관계기관 MOU 체결 예정
통일부	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	·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, 안정적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사회서비스 제공 도모
행정안전부	희망의 집수리사업 등 사회적기업 발전유도	· 「희망의 집수리사업」 등 Post-희망근로 「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」 추진 · 사업종료 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사업에 대해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
문화체육관광부	문화분야 사회적기업 육성	·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추진 및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※ MOU체결('09.6.16), 40개(449명)의 예비사회적기업 창출
농림수산식품부	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	· '15년까지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업 3천개소 육성, 11,200개의 일자리 창출 → 사회적기업으로 유도 · 우수한 회사에 농어촌 지역개발 등 관련사업 연계지원 및 교육·컨설팅 지원
지식경제부	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	· 저소득층 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열, 바닥배관 시공 ('10년도 예산 292억원) · 시공업체 선정시 타경쟁업체와 동일조건(동점시)이라면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성장을 지원
보건복지부	자활공동체 활성화	·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
환경부	환경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	· '12년까지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300개 육성, 1만여개 일자리 창출 ※ MOU체결('10.5.10)
여성가족부	여성 사회적기업 육성 시범사업	· 결혼이민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
중소기업청	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지원 제도 적용	· '창업기업지원자금'내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별도 신설·운영 ('10년 50억→'11년 100억), 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 · 사회적기업의 제품구매실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포함시켜 의무구매비율(50%) 적용
문화재청	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	· 문화재 분야 사회서비스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문화재 관리방법을 개선, 문화재관리·활용의 사회적기업 정책모델 개발 ※ '09년도 문화재 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(230여명)
산림청	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	·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중 수익가능한 모델에 대한 사회적기업 집중 육성(숲체험 교육, 도시녹지 조성·관리, 목제품 생산, 산림바이오매스 가공 분야 등) ·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회 구성, 관계부처 MOU 체결 예정

▣ 대구광역시는 “**대구형 1사1사회적기업 운동**”을 통해 상공회의소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, 2012년까지 180개 사회적기업 육성·6천명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.

\* 「**화진테크**」(공업용 장갑 생산 및 각종 사무용 기기 판매), 「**희망자전거제작소**」(폐자전거 재생·판매, 태양광·예술 자전거 등 특수자전거 제작) 등이 활동 중

▣ 전주시는 '08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, “**전통과 문화**”라는 **지역특색**을 살리고 지역 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.

\* 「**(주)사람과환경**」(연간 11,800톤 재활용품 처리), 「**(사)이음**」(한옥생활체험관·문화관광형 작업소·소외계층 대상 퓨전연주단·할머니공방 운영) 등이 활동 중

▣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**다문화이주여성들이 다국적 요리**를 선보이는 레스토랑(홍대 소재),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지원받기 어려운 **청소년을 전문요리사로 양성**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.

\* '10.4월, 근로자 31명 중 취약계층 66%(이주여성 7명, 경력단절여성 10명)

▣ 포스코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“**포스워드**”를 시작으로 **사회사 형태의 자립형 사회적기업 3개소를 설립\***하고, 향후 사회적기업 추가 설립과 자금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.

\* 「**포스에코하우징(포항)**」(친환경 스틸하우스 건축, '12년까지 150명 고용), 「**포스플레이트(광양)**」(광양제철소 조업지원 협력, '12년까지 110명 고용), 「**송도SE(인천)**」(신축건물 관리, '12년까지 175명 고용)